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Relationship between Latent Classe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Esteem among Elderly Living Alone

곽경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Kyung Hwa Kwag(khkwag@inje.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분류한 후,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의 자료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1,3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 및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5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 고학력-저소득 집단, 저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 저학력-고소득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저학력-저소득 집단이 저학력-고소득 집단, 고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이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 저학력-고소득 집단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가 추가 투입된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독거노인의 하위집단별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중심어 : | 독거노인 | 자아존중감 | 사회경제적 지위 | 잠재유형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e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o explore whether those of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d self-esteem among elderly living alone. From the data of 2009 National Elder Abuse Investigation, 1,333 older adults who were over 65 years and living alone were analyzed. Latent class analysis,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t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ults of this study found 5 latent classes of socioeconomic status, named as high education-low income group, low education-low income group, middle education-low income group, high education-high income group, and low education-high income group. Nex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depending on 5 latent classes of socioeconomic status. Finally, compared to low education-low income group, high education-low income group, middle education-low income group, high education-high income group, and low education-high income group show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even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factors.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ed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public policy for elderly living alone.

■ keyword : | Elderly Living Alone | Self-Esteem | Socioeconomic Status | Latent Class Analysis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3466).

접수일자 : 2015년 07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8월 17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17일

교신저자 : 곽경화, e-mail : khkwag@inje.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는 14.5%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이와 함께, 독거노인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16.0%를, 2010년에는 19.4%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21.6%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1]. 특히, 독거노인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같이 사는 동거노인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으며, 빈곤율이 높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편이다[2][3].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4-6].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중감,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7][8].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애 어느 시기에서나 중요하지만,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9][10]. 이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신체기능의 저하나 건강 약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노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재인식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즉,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은퇴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며, 배우자 또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성년기와 중년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다소나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4]. 게다가, 독거노인은 동거노인에 비해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소외되면서 더욱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기 쉽다[11][15].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히 보고되었다[16-20]. 이때,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

이 함께 활용되었는데, 이는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해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수준은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거의 고정적인 편이며, 어린 시절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노년기까지 그 효과가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6][21]. 이와 더불어, 다른 연구들[22][23]은 자기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태나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보다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무능력하다고 인식되면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더라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불만족 등 부정적인 정서나 심리상태가 높아지기 때문이다[23][24]. 이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상당수의 선행 연구들 [16-18][24]이 객관적 지표나 주관적 인식 중 어느 한쪽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사회경제적 상태나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지닌 응답자의 보고가 부정확하다는 문제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과 같은 소득 외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 지표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주관적 지표인 주관적 경제상태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같이 단 하나의 요인만을 포함하거나 [18][26], 교육수준이나 직업, 부와 같이 여러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각 요인별 개별 영향을 분석하거나 [16][21][25], 여러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여러 요인을 포괄하는 하나의 상위 요인(예; 사회경제적 지위)을 만들거나 그 상위 요인을 상·중·하나 5분위 등, 하위집단을 분류하여 각 특성이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27][28]. 예를 들어, 사회계층이 노인의 거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홍형욱과 지은영[28]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직업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회계층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요인들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분류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각 하위지표별 영향이나 집단별 특수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방식은 낮은 교육수준을 가졌어도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졌으나 낮은 소득수준을 지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들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그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여러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한 후, 각 집단별 특성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9][30]. 이러한 연구들은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분석되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하위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 특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9][30]. 하지만, 잠재유형분석을 활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집단들을 분류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더군다나 잠재유형분석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26]. 즉,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독거노인이 분화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26], 잠재유형분석은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한 후, 여러 특성들을 세분화하여 살필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인정받아 왔다[27][31][32].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구조적 환경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33]. 노년기는 생애 초반부터 시작된 자원이나 경험의 차이가 누적되어 사회경제적 영향이 가장 심화되는 시기로 여겨진다[16][34]. 특히, 사회경제적 능력은 노인으로 하여금 생존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으로, 노인 스스로의 가치와 자신감을 유지하게 도와준다[32][35]. 즉,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여유는 노인 스스로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가족에게 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빈곤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약화되면서

노인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쉽다[35]. 게다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능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11][15].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파악한 후, 잠재유형별로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다른 특성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들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는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산물이면서도[21],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9].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9][36-39],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요인으로는 객관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주관적 차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특성으로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논의보다는 독거노인의 하위집단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에서 제시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시되었다.

- 연구문제 1. 독거노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건강(ADL,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특성(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변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 노인학대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표본설계로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8년 주민등록인구분포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역 및 연령, 성별 분포를 파악한 후, 층화표집을 통해 선정된 300개의 조사구내 가구원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성별로 내재적 층화하여 지역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40]. 이는 전국 규모의 자료로 8,607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6,745명이 완료하였으나 본 연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3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2.1 독립변인: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되었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되었으며, '50만원 이하', '51만원~100만원', '101만원~150만원', '151만원~200만원', '201만원~250만원', '251만원~300만원', '301만원 이상'으로 구분되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경제 상태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빈도(명)	백분율(%)
연령	65세~74세	809	60.7
	75세~84세	474	35.6
	85세 이상	50	3.8
성별	여성	1062	79.7
	남성	271	20.3
교육 수준	무학	595	44.7
	초등학교 졸업	433	32.5
	중학교 졸업	115	8.6
	고등학교 졸업	130	9.8
	전문대학 졸업	9	0.7
	대학교 졸업	39	2.9
	대학원 졸업	11	0.8
소득 수준	50만원 이하	716	53.7
	51만원~100만원	460	34.5
	101만원~150만원	94	7.1
	151만원~200만원	27	2.0
	201만원~250만원	21	1.6
	251만원~300만원	5	0.4
	301만원 이상	10	0.8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나쁘다	224	16.9
	나쁜 편이다	537	41.2
	보통이다	455	34.3
	좋은 편이다	96	7.2
	매우 좋다	5	0.4

2.2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되었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7$ 로 나타났다.

2.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첫째, 건강으로 ADL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포함되었다. 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 총 12동작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특성으로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이 포함되었다.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응집력에 대한 질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4$ 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은 지난 1년간 별거자녀, 친척, 친구나 이웃, 또는 사적 모임 등의 접촉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9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42$ 로, 낮은 편이나, 이는 별거자녀 또는 친척이 없는 경우를 정황상 접촉 빈도가 없는 것으로 코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분석방법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잠재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유형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및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 사후유형소속확률값을 제시하였다. LMR LRT는 k유형 모형이 k-1유형 모형 간의 차이를 보여주며, LMR LRT가 유의할 때, k유형 모형이 k-1유형 모형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1]. AIC와 BIC는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entropy는 0~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유형 간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1]. 사후유형소속확률값은 0.7 이상일 때, 유형별 분류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42]. 이러한 잠재유형분석은 Mplus 5.21을 통해 이루어졌다.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연구대상자의 특성들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Scheffé test 결과, 유의수준(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유형들은 서로 다른 영문자(a, b, c 등)로 표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은 SPSS Statistic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잠재유형분석

1.1 잠재유형의 수 결정

잠재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잠재유형 수 결정

모형	적합도 지수			
	LMR LRT	AIC	BIC	Entropy
2유형 모형	787.67***	10744.65	10796.60	0.97
3유형 모형	318.55***	10423.04	10495.77	0.94
4유형 모형	282.85***	10138.36	10231.87	0.94
5유형 모형	188.37*	9951.45	10065.74	0.94
6유형 모형	77.90	9878.84	10013.92	0.88

* $p<.05$, ** $p<.01$, *** $p<.001$

LMR LRT 차이검증 결과에 따르면, 각 유형 모형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6유형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유형 모형과 6유형 모형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유형 모형을 제외한 모형 중, AIC와 BIC 지수는 잠재유형의 수가 5개일 때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ntropy 지수도 2유형 모형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적의 잠재유형의 수는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5개의 잠재유형별 사후유형소속확률값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잠재유형별 사후유형소속확률값은 0.873~0.991의

값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잠재유형별 분류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잠재유형별 사후유형소속확률값

	유형1 소속 확률값	유형2 소속 확률값	유형3 소속 확률값	유형4 소속 확률값	유형5 소속 확률값
유형1	0.986	0.000	0.014	0.000	0.000
유형2	0.000	0.991	0.004	0.000	0.005
유형3	0.013	0.081	0.904	0.000	0.002
유형4	0.016	0.000	0.015	0.949	0.019
유형5	0.000	0.087	0.039	0.001	0.873

1.2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파악

최종으로 선정된 5개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유형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를 비교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잠재유형1은 교육수준이 6.14로 다른 유형들의 평균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나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는 각각 2.00과 2.50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저소득 집단(n=36, 2.7%)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유형2는 교육수준이 1.41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으면서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도 각각 1.37과 2.1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저학력-저소득 집단(n=949, 71.2%)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유형3은 교육수준이 3.58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는 각각 1.61과 2.34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간학력-저소득 집단(n=220, 16.5%)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유형4는 교육수준은 5.06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면서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는 각각 5.45와 3.7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므로, 고학력-고소득 집단(n=33, 2.5%)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유형5는 교육수준은 1.80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는 각각 3.45와 3.1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저학력-고소득 집단(n=95, 7.1%)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잠재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

요인	잠재유형					
	유형1: 고학력 저소득 집단 n=36 2.7%	유형2: 저학력 저소득 집단 n=949 71.2%	유형3: 중학력 저소득 집단 n=220 16.5%	유형4: 고학력 고소득 집단 n=33 2.5%	유형5: 저학력 고소득 집단 n=95 7.1%	
교육수준	M	6.14 ^a	1.41 ^a	3.58 ^c	5.06 ^d	1.80 ^b
	SD	0.42	0.49	0.55	1.27	0.69
	F	1510.51***				
소득수준	M	2.00 ^b	1.37 ^a	1.61 ^a	5.45 ^d	3.45 ^c
	SD	0.79	0.49	0.60	1.18	0.75
	F	671.42***				
주관적 경제 상태	M	2.50 ^a	2.19 ^a	2.34 ^a	3.76 ^c	3.18 ^b
	SD	1.06	0.76	0.87	0.66	0.62
	F	63.62***				

^a p<.05, ^b p<.01, ^c p<.001

2.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독거노인의 자아 존중감 및 특성들

2.1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자아존중감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로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저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저학력-고소득 집단, 고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이 높게 나왔다. 또한,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학력-고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자아존중감

요인	잠재유형					
	고학력 저소득 집단	저학력 저소득 집단	중학력 저소득 집단	고학력 고소득 집단	저학력 고소득 집단	
자아 존중 감	M	28.83 ^{c,d}	25.17 ^a	26.52 ^{a,b}	30.45 ^d	27.79 ^{b,c}
	SD	3.97	3.65	3.98	3.95	3.73
	F	34.38***				

^a p<.05, ^b p<.01, ^c p<.001

2.2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로 독거노인의 건강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ADL은 차이가 없는데 반해,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저학력-고소득 집단과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중간학력-저소득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건강

요인		잠재유형				
		고학력 저소득 집단	저학력 저소득 집단	중학력 저소득 집단	고학력 고소득 집단	저학력 고소득 집단
ADL	M	0.06	0.16	0.10	0.06	0.15
	SD	0.23	0.55	0.37	0.24	0.48
	F			1.13		
주관적 건강 상태	M	3.08 ^{ab}	2.64 ^a	2.81 ^{ab}	3.61 ^c	3.17 ^{bc}
	SD	0.94	0.93	0.97	0.93	0.94
	F			16.04 ^{***}		

* p<.05, ** p<.01, *** p<.001

2.3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사회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로 독거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에 따르면, 고학력-저소득 집단, 저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과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가족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과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력-저소득 집단과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사회적 특성

요인		잠재유형				
		고학력 저소득 집단	저학력 저소득 집단	중학력 저소득 집단	고학력 고소득 집단	저학력 고소득 집단
가족 관계	M	29.34 ^a	30.68 ^a	29.13 ^a	37.30 ^b	35.19 ^b
	SD	9.86	7.80	8.93	4.84	6.91
	F			15.40 ^{***}		
사회 관계	M	14.47 ^a	16.46 ^{ab}	15.58 ^{ab}	20.82 ^c	19.16 ^{bc}
	SD	7.31	6.98	7.20	5.08	6.85
	F			8.31 ^{***}		

* p<.05, ** p<.01, *** p<.001

3.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특성들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및 특성들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건강, 사회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건강 요인을 추가·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모형 1에 사회적 특성을 추가·투입하였으며, 모형 4에서는 모형 1에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추가·투입하였다.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중 저학력-저소득을 기준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저학력-저소득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 유형들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1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중, 저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 저학력-고소득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9.0%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영향이 모형1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중, ADL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0.6%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ADL이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영향이 모형1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 중, 가족관계와 사회적

표 8.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고학력-저소득 집단	3.66	0.67	0.15***	3.12	0.63	0.13***	3.98	0.59	0.16***	3.52	0.57	0.14***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1.25	0.29	0.12***	0.99	0.27	0.09***	1.60	0.25	0.15***	1.35	0.24	0.13***
고학력-고소득 집단	5.11	0.66	0.21***	3.88	0.63	0.16***	3.64	0.59	0.15***	2.84	0.57	0.12***
저학력-고소득 집단	2.45	0.40	0.17***	1.81	0.38	0.12***	1.47	0.36	0.10***	1.08	0.34	0.07**
건강												
ADL				-0.84	0.19	-0.11***				-0.87	0.17	-0.12***
주관적 건강상태				1.20	0.11	0.30***				0.90	0.10	0.22***
사회적 특성												
가족관계							0.20	0.01	0.41***	0.18	0.01	0.38***
사회적 관계망							0.05	0.02	0.08**	0.03	0.02	0.06*
R ²		0.090			0.196			0.285			0.350	
ΔR^2		0.090			0.106			0.195			0.261	
F값		31.101***			50.911***			83.102***			84.129***	

* p<.05, ** p<.01, *** p<.001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중, 저학력-저소득 집단이 기준임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9.5%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빈번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이 동시에 추가·투입된 모형 4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영향이 모형 1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사회적 특성 모두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6.1%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구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포함했을 때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독거노인의 하위 집단별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은 5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고학력-저소득 집단(2.7%), 저학력-저소득 집단(71.2%), 중간학력-저소득 집단(16.5%), 고학력-고소득 집단(2.5%), 저학력-고소득 집단(7.1%)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단순히 소득수준에 따라 상·중·하 5분위로 나누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위집단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26].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유형별 특성이나 요구를 파악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략 3%의 독거노인이 저학력-저소득의 사회경제적 집단 유형에 속해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독거노인이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으로서[2][3],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라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저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은 저학력-고소득 집단이나 고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의 자아존중

감이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자아존중감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라 독거노인의 건강 및 사회적 특성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저소득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고학력-고소득 집단과 저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저소득 수준 집단과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저소득 집단, 저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의 가족관계가 고학력-고소득 집단과 저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은 고학력-저소득 집단이 고학력-고소득 집단과 저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력-저소득 집단과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이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건강이나 사회적 특성상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넷째,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이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27][31][32]. 이는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유형이 독거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27]. 또한, 독거노인의 건강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9][37], 동거인이 없이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이나 자괴감이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함을 알 수 있다[9][37]. 독거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36][38][39]. 이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36]. 게다가, 가족관계가 사회적 관계망보다는 더 강력하게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적 함의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독거노인의 차이를 통해 각 유형별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형별 편차를 감소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수준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켜서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 유형은 일자리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관심과 소속감을 유도하면서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더욱 고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독거노인의 특성이나 필요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효용성을 증대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외로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과 자주 교류하는 가정봉사원이나 가정방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독거노인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독거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독거노인에게는 가정봉사원 같은 인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정방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거동이 자유로운 독거노인에게도 건강의 유지나 개선되도록 예방프로그램이 제공함으로써, 홀로 거

주하는 독거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넷째,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그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는데, 가족 간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기반으로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사회적 교류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적 함의와 정책적 제언을 종합해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독거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거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다각적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긴밀한 협조 하에 서로 간의 연계망을 조성해야 한다.

대규모의 조사를 통해 진행된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와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독거노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분석으로 측정도구 상 문제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도구를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생애 초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애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하며, 이러한 변화가 자아존중감, 건강 및 사회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동거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독거노인의 특성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mTabId=M01_01#SubCont
- [2] 권중돈, 엄태영, 김유진,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독감의 영향 및 무망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1호, pp.89-114, 2012.
- [3] 김영주, “남녀별 독거노인과 동거노인의 건강습관,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333-344, 2009.
- [4] 김영태, “독거노인의 개인적 속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59권, pp.187-208, 2013.
- [5] 이수천, 강선옥, 장미정, 윤승비,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영성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44권, pp.139-161, 2014.
- [6] 이정관, 김준현,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3호, pp.191-211, 2013.
- [7] R. Giarrusso and V. L. Bengston, “Self-esteem,” In J. E. Birren (Eds.), *Encyclopedia of Geront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Vol.2, pp.459-466, 1996.
- [8]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9] 김남희, 최수일, “여성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41-252, 2011.
- [10] 송대현, 박한기,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2권, 제1호, pp.79-96, 1992.
- [11] 서경현, 김영숙,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제1호, pp.115-137, 2003.
- [12] U. Orth, K. H. Trzesniewski, and R. W. Robins, “Self-esteem Development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 Cohort-sequential Longitudinal

-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8, No.4, pp.645-658, 2010.
- [13] R. W. Robins, K. H. Trzesniewski, J. L. Tracy, S. D. Gosling, and J. Potter, “Global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Vol.17, No.3, pp.423-434, 2002.
- [14] J. Wagner, F. R. Lang, F. J. Neyer, and G. G. Wagner, “Self-Esteem across Adulthood: The Role of Resources,” *European Journal of Ageing*, Vol.11, pp.109-119, 2013.
- [15] 김태현, 한은주,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3호, pp.81-106, 2004.
- [16] 강혜원, 조영태, “서울시 남녀노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통합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권, 제4호, pp.164-201, 2007.
- [17] 이상록, 이순아, “노인가구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3호, pp.71-95, 2014.
- [18] D. O. Clack, T. E. Stump, D. K. Miller, and S. Long, “Educational Disparities in the Prevalence and Consequence of Physical Vulnerabili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62B, pp.S193-S197, 2007.
- [19] P. M. Lantz, J. W. Lynch, J. S. House, J. M. Lepkowski, R. P. Mero, M. A. Musick, and D. R. Williams,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Health Change in a Longitudinal Study of US Adults: The Role of Health-risk Behavio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53, pp.29-40, 2001.
- [20] J. C. Phelan, B. G. Link, A. Diez-Roux, I. Kawachi, and B. Levin, “Fundamental Causes of Social Inequalities in Mortality: A Test of the Theor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5, pp.265-285, 2004.
- [21] 이승미, “한국 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3호, pp.135-157, 2002.
- [22] N. E. Adler, E. S. Epel, G. Castellazzo, and J. R. Ickovics,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Vol.19, No.6, pp.586-592, 2000.
- [23] D. Operario, N. E. Adler, and D. R. Williams, “Subjective Social Status: Reliability and Predictive Utility for Global Health,” *Psychology and Health*, Vol.19, No.2, pp.237-246, 2004.
- [24] J. Nobles, M. R. Weintraub, and N. E. Adler,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Relationships Reconsidered,”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82, pp.58-66, 2013.
- [25] 김진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권, 제3호, pp.127-153, 2007.
- [26] 정운영, 정세은,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119-1134, 2011.
- [27] 윤명숙, 이묘숙,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2호, pp.397-413, 2012.
- [28] 홍형욱, 지은영,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pp.83-95, 2002.
- [29] R. A. Rose, S. L. Parish, and J. R. Yoo, “Measuring Material Hardship among the US Popul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94, pp.391-415, 2009.
- [30] C. Yuan, C. Wei, J. Wang, H. Qian, X. Ye, Y. Liu, and P. S. Hinds, “Self-efficacy Difference among Patients with Cancer with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Application of Latent Class Analysis and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Analysis,” *Cancer Epidemiology*,

Vol.38, pp.298-306, 2014.

[31] 박영례, 권혜진, 김정희, 최미혜, 한승희,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9권, pp.237-258, 2005.

[32] 양점도, 이금자, 박영국, “노인의 자아존중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경북 의성군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제18권, 제1호, pp.1-25, 2008.

[33] R. J. Turner and W. R. Avison, “Status Variations in Stress Exposure: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Research on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4, pp.488-505, 2003.

[34] C. F. Mendes de Leon, L. L. Barnes, J. L. Bienias, K. A. Skarupski, and D. A. Evans, “Racial Disparities in Disability: Recent Evidence from Self-reported and Performance-based Disability Measures in a Population-based Study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60B, pp.S263-S271, 2005.

[35]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36] 김도환,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3권, pp.113-144, 2001.

[37] 김양례,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일상생활수행 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6호, pp.183-192, 2005.

[38] 장숙희, 김창숙, 김미란,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4권, 제2호, pp.39-46, 2008.

[39] 정원철, 박선희,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235-245, 2013.

[40] 정경희, 이윤경, 오영희, 손창균, 윤지은, 이은진, 권중돈, 김경호, *2009년도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 정책보고서2010-11*, 2010.

[41] K. L. Nylund, T. Asparouhov, and B. O. Muthén,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14, No.4, pp.535-569, 2007.

[42] D. S. Nagin,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저 자 소 개

곽 경 화(Kyung Hwa Kwag)

정희원



- 2009년 12월 : Iowa State University, Dep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h.D.)
 - 2015년 1월 ~ 현재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연구원
- <관심분야> : 노인, 청소년, 다문화, 사회적 불평등